

## 〈書 評〉

Louis, H. und Fischer, K., *Allgemeine Geomorphologie*, 4. Auflage  
Walter de Gruyter, Berlin. New York, 1979, 814 pages (Bilderteil,  
181 pages).

이 책은 독일 München 大學의 명예교수인 Louis 박사가 1960年初版을 내어놓은 이후 출판된 4번째의 수정증보판이다. 특히 1979년에 發行된 第四版은 最近 새로 알게된 事實들을 많이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Louis 박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分野를 Augsburg 大學의 Klaus Fischer 교수를 共著者로 하여 補完하였기 때문에 책의 內容이 크게 向上되었다.

Louis 교수는 1950年代까지는 南西部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侵蝕地形一般과 永河地形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으나, 1960年代 이후에는 氣候地形學的인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研究를 해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그의 과거 연구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侵蝕地形一般과 永河地形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堆積地形一般과 地形의 計量的 特性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地形의 생성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애그램이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내용을 문장만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독일어의 실력이 부족한 독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책이 비록 대단히 방대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는 것이다. 즉 Louis 박사는 地形發達史의 立場에서 보다는 地形營力中心으로, 그리고 氣候地形學的의 接近方法을 통하여 地形學의 問題들을 풀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이 책은 크게 序論, 大地形, 小地形, 地形誌의 四部分으로 構成되었는 바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序論에서는 地形學의 發達史와 地形研究方法 등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特別히 새로운 것은 없다.

大地形의 章에서는 地表上的 大地形分布特徵과 그 基本的인 形成機構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 特別히 陸地와 海洋의 一次 내지 二次의 起伏의 形成原因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地球物理學的의 내지 地質學的의 研究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事實을 강조하고 地形學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地質學的의 事實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小地形의 章에서는 地形形成營力에 따라 地表上的의 小地形을 河川地形, 카르스트地形, 氷河地形, 風成地形, 海岸地形, 海底地形, 人爲的의 地形의 7個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河川地形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營力으로서 河川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面을 面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河川地形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는 最近의 氣候地形學的의 연구 성과도 많이 참조하고 있으며 構造運動과 河川地形과의 關係에 대해서도 많은 面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河川地形과 面시켜서 斜面發達과 谷의 發達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하고 있다.

小地形의 章에서 특히 注意를 끄는 部分은 人爲的의 地形이다. Louis 박사는 最近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地形營力으로서의 人間의 作用이 크게 增大하였다고 보고, 人間에 依한 地表物質의 垂直的의 내지 水平的의 移動이 地形發達에 미치는 影響을 고찰하였다.

第四章 地形誌에서는 地表를 極地 및 亞極地, 中緯度濕潤地域, 亞熱帶濕潤 및 半濕潤地域, 熱帶乾濕交代地域, 熱帶濕潤地域, 乾燥 및 半乾燥地域으로 나누어 여기에서 發達하는 獨特한 地形과 그 形成營力을 說明하였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大陸에서의 地形學研究結果를 접하기 어려운 우리의 面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우리 나라의 地形學 및 地理學, 地質學을 面공하는 面들에게 매우 귀중한 資料가 될 것이 틀림없다.

: (朴 東 源)